

# '박근혜 첫 재판' 공소사실 모두 반박

### 유영하 "검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도 기소할 수 있어"

### "블랙리스트 기소는 살인자 어머니에게 살인죄 묻는 격"

### 검찰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여론·기사만 보고 기소하나"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3일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를 향해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똑바로 말하며 본인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25분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반박하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의 18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일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며 "공소사실은 엄격하게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상당수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논란이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이 사건 논리로 검찰이 적용한다면 그 사건 당사자들에게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쓰어붙였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출연금과 관련하여서는 "재단 설립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청와대 방모 행적과 진술에 보면 2015년 2월께 안중범 전 수석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 주장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찬 이후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한 이후 재단 설립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일부 기재돼 있고 특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재단 설립하라고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

마 지원한 약 79억원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에 따라 코어스포츠 법인 계좌로 송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 본인(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경제공동체 개념이 성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경제공동체 개념뿐만 아니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도대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모의과정과 범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및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공관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부분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공모했다고 설시돼 있는데 그럼 당시 장관인 유진룡은 공범이 되는지(검찰에) 설명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고 또 물리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 등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더라도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지금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고 따진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변호사 주장을 들은 검찰 측은

"정치적으로 정치상황에 따라서 기소한 게 아니다"며 "저희(검찰)는 법률가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없다.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서 행위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관단을 거쳐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여론과 그리고 언론기사에 의해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단설립 출연금을 낸 기업 외에 추가 자금을 지원한 곳이 삼성, 롯데그룹이고 요구받은 기업이 SK그룹"이라며 "처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3곳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 두고 수사를 했고 이후 특검 출범 후 기록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삼성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다시 인계받은 검찰이 SK와 롯데그룹 기록을 상세히 검토해 추가로 뇌물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속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엄밀히 판단하고 엄정히 증거 판단해 거친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심리와 관계없는 추방사위나 정치지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재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뉴스

### "끝내 세상 바꾸는 힘이 됐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자"

## 文대통령 "盧의 꿈,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제 노무현의 꿈이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사회, 특히 우리의 정치는 더욱 비정상상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고, 국민의 희망과 갈수록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됐다"며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라며 "개혁도, 저 문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못다한 일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묘역에 분향하고 있다.

음 민주정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마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

지막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린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며 "그때 다시 한 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본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달라"고 덧붙였다. /뉴스

###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직 고사... 25일 중앙위

국민의당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23일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 자신이 꺼내든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동교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전 원내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아침에 전화해서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비대위원장 인선을 원점부터 재논의하기로 했다. 동교동계 원로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반발해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상황이다. 고 대변인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중앙위를 소집해 비대위 지도부 구성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임시로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혁신형 비대위든 실무형 비대위든 2~3일간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8월 정도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강인한 야당을 해 나가기로 했다"며 "8월 전당대회는 거의 확정된 것 같다"고 했다. /뉴스

### 김무성 '젊고 유능한 사람 지도부 돼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차기 지도부는 좀 젊고 유능하고 기존 바른정당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비대위 주장한 적 없고, 바른정당은 좀 과거적으로 이미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전혀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았다. (차기 지도부에 대해) 난 생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도부 규모를 줄이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면 결국 국민 인지도 높은 사람이 지도부가 된다"며 "반약 그런 일이 결과로 나오면 젊은 사람들을 지도부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지명직 숫자는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스

### 정세균 의장 "盧처럼 국회도 국민만 바라보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인 23일 "당신이 그러했듯, 국회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전진시켜 나가겠다. 우리 국회도 소통과 협치로 그 길에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년 전 대통령님께서 뿌린 씨앗이 오늘날 수천만의 담쟁이로, 촛불로 살아나 결코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벽을 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앞길을 밝혀주는 햇살이 됐다"며 "바보 노무현이 시작한 '이산(離山)'의 역사를 이제 우리 국민이, 새로 출범한 민주정부가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권과 반칙 대신 상식과 정의가 숨 쉬는 나라,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통합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권력과 기득권이 득세하지 않고 열심히 밤 흘리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나라, 대통령의 꿈을 다시 읽고 새겼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여기 제2, 제3의 바보 노무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추도사 중 '바보 노무현'이라고 말하다 잠시 울먹거리다 감정을 추스른 후 다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뉴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한 교사로  
만들게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교리'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